

社說

경기도 신설

총선용이나 아니냐? 이번에는 아니다. 아니기를 바란다. 총선 후 의정부 문희상 국회의원 당선자가 말문을 열었다. 2006년도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경기도도 도시사를 선출하겠다는 것이다. 순학규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신설을 반대한다. 공식적인 이유는 경기남부지역 주민들로부터 징수한 세금으로 경기도 지역 발전사업비로 투자한다는 논리다.

그동안 어떤 도시사도 서울 다음으로 큰 경기도를 나누고 싶어 하지 않았다. 공식적인 이유와는 다른 내면적 욕심(?)이 도사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것은 바로 '대권'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누가 그 욕심을 채울 수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문희상 당선자는 경기도 신설을 위한 정부내 기획단 및 추진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2006년도에 경기도 도시사를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 출범이후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문희상 당선자의 이같은 발언이 현실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그리하여 경기도 북부 지역주민들도 다같이 잘사는 무대를 만들어 주기를 기대한다.

경기도와 경기도남부를 경기도 자료에 의해 비교해보자. 인구는 북부 260만명, 남부 775만명이다. 예산은 북부 3조4천44억원, 남부 9조2천949억원이며 재정자립도는 북부 53.8%, 남부 70.5%이다. 의료기관수는 북부 1천965개, 남부 6천227개이며 등록 공장수는 북부 7천228개, 남부 2만4천786개이다.

대학수는 북부가 3개, 남부가 28개이며 인구대비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는 북부가 2.03%, 남부가 1.67%이다.

이같은 비교수치만 놓고 보면 같은 경기도임에도 남북의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다.

이같은 불균형의 원인은 차별화 정책이다. 차별화 정책은 그동안 경기남부를 중심으로 한 각종 정책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소외되어 왔던 것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잘 사는 경기남부지역에는 큰 위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으나 경기북부지역에서는 큰 위력을 행사하여 대학을 고차 3개교로 묶어 놓은 것이다.

경기도지사가 여러 가지 규제로 묶여 있는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민생복리와 행복추구를 위한 그 어떤 시책보다 경기도를 신설하는데 적극 노력해야 할 이유는 바로 경기북부 지역주민들의 90%이상이 분도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민의를 수렴하는 정책결정인 것이다.

경기도체육대회도 1, 2부로 나눠 실시한다. 그래서 우승을 해도 1부, 2부를 따지게 된다.

경기도도를 신설하면 1, 2부로 나누지 않아도 된다. 경기도는 남부와 북부간의 문화의식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화가 잘 진전이 안될 때도 있다.

문화예술탄생들도 남부와 북부간의 의사소통이 잘 안될때가 있다. 삶의 방식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다.

그래서 경기도도를 신설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요소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경기북부지역주민은 경기도의 변방이다. 이 변방의 위치를 점유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은 소외감이다.

이 소외의식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경기도 신설이다.

포천시민을 비롯하여 경기북부 지역주민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경기도 신설이 가시화되어 이곳 주민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함이 현명하다고 본다.

포천시 제1회 추경 246억 6천만원 편성

일반 198억 8천만원, 특별 47억 8천7백만원



포천시의회는 18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제6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포천시가 제출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 선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구성 등의 안건을 처리한다.

이번 임시회에 포천시가 제출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일반예산 198억8천만원, 특별회계 47억8천7백만원 등 총 246억6천7백만원의 추경예산으로 계상됐다.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예산은 세외수입 71억7천2백만원, 지방교부세 35억7천2백만원, 재정보전금 25억3천2백만원, 국고보조금 40억5백만원, 도비보조금 25억9천9백만원 등 198억8천만원이다.

또 특별회계예산은 세외수입 43억 3백만원, 보조금 4억8천4백만원 등 47억8천7백만원이다.

한편 일반회계 세출안은 총 198억8천8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행정비 19억5천8백만원, 사회개발비 61억8천8백만원, 경제개발비 97억6백만원, 민방위비 5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20억2천3백만원이 반영됐다. 또 특별회계 세출안은 수도사업 28억2천2백만원, 하수도사업 4억2천1백만원, 의료보호기금 3천2백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 11억9천8백만원, 관광지관리 3억4백만원 등이다.

그러나 이번 추경예산안에 포천시의 시급한 당면과제인 수질개선 예산을 비롯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공영개발사업, 주택사업,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주차장 관리예산 등 전액 편성되지 않아 포천시 재정자립도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복 기자 best114@hiteel.net

도립학교 선심성 예산편성 논란

오병익 도의원 "공약지키기 아니냐" 따져



안산도립직업전문학교 예산이 대폭 증액돼자 경기도의회 오병익 도의원(무·포천1)이 순학규 경기도지사의 우수학생 해외연수 약속에 따른 선심성 예산편성이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1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지난 95년 취업난 해결을 위해 안산 대부도에 도립직업전문학교를 건립한뒤 학생을 모집(정원 540명)했으나 지난 2001년 529명, 2002년 368명, 지난해 493명 등 매년 미달사태가 계속됐다.

그러나 읍몰어 야간산업기사 36

명, 기능사과정 756명 지원으로 입학정원보다 252명이 늘어난 792명이 입학하자 순학규 경기도지사는 직업학교를 방문해 "우수졸업생에게 해외연수를 보내주겠다"고 학생들에게 약속했다는 것.

이에 따라 도는 2004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도립직업전문학교 운영비 가운데 우수교육생 해외연수 명목으로 3천90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

이같은 사실에 대해 오병익 도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도의회 예결위와 경제투자관리실 예산심사사에서 "도립직업전문학교 우수교육생에게 해외연수를 시켜주겠다는 순지사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집행부가 3천여만원의 재원을 마련

했으나 내년도에 정원 미달사태가 벌어지면 결국 예산낭비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장년실업자들에게는 2만원 일당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교육생에게는 1년동안 2천만원의 비용을 지원하고 해외연수비용까지 요청한 것은 결국 순지사의 공약을 지키기 위한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임종순 경투실장은 "순 지사가 도립직업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그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원증원 및 예산은 사전에 학교측이 요구한 것을 반영 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hiteel.net

정치활동 동향



박윤국 포천시장은 지난 15일 제23회 스승의 날을 맞아 모교인 영북종합고등학교에서 가진 특강을 통해 대회사리에 대학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성훈 포천시의회 의장은 47번 국도변 지역경제활성화 관광특화 토론회에 참석해 47번 국도변 개발을 위해 포천시의회가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대종 포천시의회 부의장은 지난 16일 주민자치센터에서 청소년지도위원회 학생 200명을 초청해 지역에 대한 애양심 고취와 지역발전을 위해 특강을 실시했다.



이상만 경기도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추경예산 농업부문 심의에 나서 포천지역의 개성인삼 맞춤형 농정 관련예산에 심의했다.



오병익 경기도의원은 지난 15일 산정호수 한화콘도에서 개최된 가구산업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에 참석, 가구산업연구센터의 포천유치를 위해 관계자들을 설득했다.



이종호 포천시의회의원은 지난 13일 제50회 경기도체육대회에 출전한 참가선수들을 격려하고 14일에는 나눔의 집 자원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나눔의 집 운영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강림 포천시의회의원은 지난 19일 포천동체육회장 이취임식에서 전임 운영회 회장의 노고에 감사하고 신임 이성노 회장을 중심으로 포천동체육회 발전을 도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성현 포천시의회의원은 만세교리에 유치할 쓰레기처리장 사업에 대해 만세교리 주민들의 반대입장과 시의 입장사이의 가교역할을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중이다.

경기도 총선 선거비용 191억5천만원

선거비용 최다지출 권영백 후보 1억7천457만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15일 실시된 17대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한 지역구 후보 229명이 사용한 총 선거비용이 191억4천700만원이며, 1인당 평균 선거비용 지출액은 선거비용제한액의 50.9%인 8천361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선거비용 최다지출자는 포천·연천 자민련 권영백 후보(낙선)로 1억7천457만원을 사용했으며, 최소 지출자는 수원 팔달 자민련 양춘천 후보(낙선)로 384만원을 쓴 것으로 신고했고 당선자 중에는 광명 갑 열린우리당 이원영 후보가 8천194만원을 사용해 최소 선거비용 지출자로 나타났다.

최다선 안산단원갑 열린우리당 전정배 당선자로 94.8%를 쓴 것으로 신고했고, 지출률 최소는 수원 팔달 양춘천 후보로 2.29%를 쓴 것으로 신고했으며 낙선자중에는 용인 을 열린우리당 김종희 후보가 93.3%를 사용해 지출률이 최다로 나타났다.

도 선관위는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서와 회계보고서를 오는 21일부터 오는 8월21일까지 3개월간 공고 및 열람토록 할 계획이며, 회계보고서상에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을 누락했거나 허위보고한 사례를 신고, 제보한 사람에게 최고 5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기로 했다.

정병갑 기자 jpk61@hanmir.com

고유가시대! "올여름 냉방비 해결"

빙축열 설비를 위한 저금리 융자 지원 에너지관리공단 서울지사(지사장 구종덕)는 하절기 전력난 완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빙축열 설치 융자금을 연리 3.5%(변동금리)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고 있다.

빙축열 설치자금에 전력기반기금을 활용해 조성한 설치 자금으로 총 105억원 가운데 59억원(60%)을 이미 추천 완료했다.

이 설비는 여름철 냉방용 전력

을 전력수요가 적은 심야시간대로 분산시켜 부하평준화를 촉진하기 위한 전기공급 원가 절감 시스템으로 건물주들의 높은 관심에 예상된다. 빙축열 냉방시설은 심야 시간에 냉동기를 가동하여 축냉조에 냉열을 저장하였다가 전력부하가 높은 주간 시간대에 냉방을 하는 설비로서 국가적으로 전력수급의 안정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냉방설비의 운전비용 감소를 통하여 건물주는 경제적인 이득과 당

해 투자 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이용하여 빙축열 냉방설비를 설치한 대표적 인 사례로는 한국방송공사(KBS)의 신관 냉방시설 교체를 들 수 있는데 이 개선을 통해 방송장비들의 열부하 방지와 냉방운전 전력 peak 상승에 따른 전력운영의 부담을 줄일 수 있었으며, 연간 절감액 59tce로 228백만원의 절감액을 달성하고 있다.

정병갑 기자 jpk61@hanmir.com

등록번호 경기 다 50007  
2000. 8. 18 등록

**포천신문** http://www.ipcs21.com

발행처: (주)한국정보 경기도 포천시 동교동 213-4 고은 B/D 1년 구독료 48,000원

사훈: 주인의식(主人意識) 정론직필(正論直筆) 문화정달(文化暢達)

편집국 (031)542-9776 발행인 겸 대표이사 최호열  
 기사계보 (031)542-9888 편집인 구봉주  
 광고접수 (031)542-9889 편집국장 김영복  
 구독신청 (031)541-9115 인쇄인 김규석  
 FAX (031)541-911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준수문헌에 실정요강을 준수한다.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 금마 고속 관광 '**

- 최신형 전세버스 완비 -  
 25인승, 35인승, 45인승

호도관광  
 신혼여행  
 수학여행  
 문화재답사

주소: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유교리 1043-1 예약문의: (031) 544-8888 대표이사: 이복용